

'시대의 큰 어른' 의재 허백련의 삶과 예술을 생각하다

'삶과 예술-자료전'

10월27일까지 의재미술관
어록·신문기사·사진·작품등

"지혜 가르쳤던 허백련 선생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광주 개화를 이끌었던 석야 최원순, 오방 최흥중, 의재 허백련의 인연이 깃든 현판. '오방정'(위)과 석야정.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전시실 내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문구다. 삶은 숭고하며 그 자체로 고귀하다. 예술 또한 지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기에 소중하다. 흑여 삶은 예술처럼, 예술은 삶처럼 살라는 의미가 아닐지. 삶을 앞자리에 둔 것은 아무리 예술적 재능이 탁월하다 해도 사람됨, 삶의 본질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뜻인 것도 같다.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의 어록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회자된 말이다.

무등산 증심사 계곡 등산로 자락에는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이 있다. 녹음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백백하게 에두른 곳에 자리한 미술관에 들어서면 의재 허백련의 성정을 느낄 수 있다. 건물들은 경사면을 따라 배치돼 단을 구성하면서도 자연에 순응하는 이미지를 발한다.

시절이 수상한지라 사람들은 의재의 정신을 이야기하곤 한다. '시대의 큰 어른'이었던 의재는 하늘과 땅, 사람을 사랑하자는 '삼애사상'(三愛思想)을 추구했다. 사실 오늘날 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는 우리 삶의 근간인 '삼애'가 부족에서 비롯됐다. 하늘과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라면 결코 무도하고 염치없는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다.

의재 허백련의 삶과 예술을 사유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의재미술관에서 오는 10월 27일까지 진행되는 기획전 '삶과 예술-자료전'은 시대의 어른이었던 의재를 다채로운 자료를 통해 만나는 시간이다. 허백련은 남중문인화의 거장이면서 무등산 춘설헌에서 그림을 그리고 농업학교를 세워 농민지도자를 길러냈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자료 가운데 하나는 최

치국의 '의재 허백련 초상'이다. 노년의 의재를 사실적이면서도 담백하게 묘사했다. 의재가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구현한 작품으로, 평소 강조했던 화론이 적혀 있다.

"고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고법과 내 손밖에 벗어나지 않는다. 금강저와 같은 필봉은 습관을 탈피하여야 한다."

예술의 본질, 작품을 대하는 자세가 집약된 글귀다. 새로움에 대한 추구는 익숙한 것로부터의 결별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선생을 다룬 다양한 신문기사도 볼 수 있다. 1971년 12월 서울신문화랑 회랑에서 열린 '동양화 6대가전'에는 허백련의 '추강귀어'가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의재 허백련, 이당 김은호, 심산 노수현, 소정 변관식, 심향 박승무, 청전 이상범이 함께 한 전시에 대해 "한국 동양화단의 최고 원로 화백 여섯 분의 심오한 노경의 작품들을 초대 전시하는 최초의 동양화 6대가 전람회"라는 글귀가 기술돼 있다.

1938년 설립한 연진회와 설립 배경, 회원들의 명단 등도 있다. 지금 읽어도 그 뜻은 깊고 담백하다. "예술을 닦는 사람은 반드시 그 참다운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일이고, 양생을 닦는 사람은 그 참된 근원을 보존하는 일이다. 우리 회가 예락을 바탕으로 서로 모여서 삶을 값지게 보내기 위해 '연진'(鍊眞)이라 이름 지으니 그 누가 거짓이라 하겠는가"

광주시 문화유산자료인 석야정(石野亭)·오방정(五放亭) 현판을 만나는 것도 즐거움이다. 이 현판은 한쪽에는 '석야정'. 다른 쪽에는 '오방정'이라고 양각돼 있다. 여기에는 광주 개화를 이끌었던 석야 최원순, 오방 최흥중, 의재 허백련의 인연이 깃들어 있다.



'춘설헌에서 제자들과 함께'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하던 최원순은 건강이 나빠져 광주로 내려온다. 춘설헌 자리에 집(석야정)을 짓고 요양을 했다. 당시 현판은 서예가 성당 김둔희가 썼다. 이후 최흥중은 최원순으로부터 석야정을 물려받아 '오방정'이라 이름을 짓고 생활했다. 당시 허백련은 석야정 현판 뒷면에 '오방정' 글씨와 함께 대화 그림을 그려 넣었다.

한마디로 현판은 20세기 초 광주근현대사를 이끌었던 3인의 흔적이 깃든 공간의 표식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밖에 전시실에는 '삼애정신'을 소전 손재형이 표현한 서예 작품을 비롯해 춘설헌을 찾은 인사들과의 사진 등도 비치돼 있다.

이선옥 관장은 "'의재'(毅齋)라는 호는 '강한 집'이라는 뜻을 내재하고 있는데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집뿐 아니라 의재 선생은 내면의 집, 마음의 집도 집이라 상징했다"며 "다양한 자료를 통해 격변의 시기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던 시대의 큰 어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치국 작 '의재 허백련 초상'

20세기 극장가 수놓았던 불후의 명작들

광주극장, 11월까지 '월간 클래식:20세기 명화극장' 시즌 2 개최



영화 '가족 게임' 포스터

고전명작 반열에 오른 영화들을 매월 한 편씩 상영하는 '클래식 명화극장' 행사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광주극장이 지난해에 이어 '월간 클래식: 20세기 명화극장' 시즌 2를 개최한다.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편의 20세기 명작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로 광주극장, 광주시네마테크,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1~2회차 행사는 오는 15일(오후 3시), 23일(시간 미정) 광주극장에서 진행하며 영화 '가족 게임'을 상영할 예정이다. (7~11월 상영작은 추후 공지할 예정)

중학교 3학년 학생 '누마타 시게유키'는 성실한 형 신이치에 비해 성격이 좋지 않다. 여러 가정 교사가 바뀔 정도로 '문제아'지만, 어느

날 삼류대학에 다녔던 요시모토가 새로운 가정 교사로 오면서 변화가 시작된다.

현대일본의 가정·교육을 비판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족 게임'은 모리타 요시미츠 감독 특유의 냉소적인 시선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이 영화로 모리타 감독은 '키네마 준보 베스트 10' 1위와 감독상, 감독상을 비롯해 '일본영화감독 협회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극장은 지난해 '월간 클래식' 프로그램을 통해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옛날 옛적 서부에서', 시드니 폴락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등을 선보였다.

광주극장 김형수 전무이사는 "지난해 관객들이 보여준 성원에 힘입어 시즌 2 기획전을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나와 가족과 이웃 '인생 아리랑'

17~28일 김윤숙 개인전...가톨릭 광주대교구청 갤러리 '현'



'인생 아리랑-아버지의 봄날'

'아리랑'은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이자 '고유명사'다. 아리랑은 그 자체로 한민족, '코리아'를 환기한다. 일제 강점기를 비롯해 수난의 시기에 우리 조상들은 아리랑을 부르며 고난의 역사를 극복해왔다. 아리랑은 비단 공동체 정신만을 함의하지는 않는다. 개개인 삶에도 아리랑에 은유되는 역사와 굴절이 있는데 이는 아리랑이 지닌 개방성, 보편성, 특수성과 관련돼 있다.

예술이 넘어 생애 첫 개인전으로 '인생 아리랑'을 주제로 내건 작가가 있다. 주인공은 김윤숙 작가.

김 작가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갤러리 현(가톨릭 광주대교구청 내)에서 전시를 연다. 아리

랑을 전면에 내건 것으로 보아 자신만의 아리랑을 화풍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리랑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은 인간애의 구현, 인간애의 추구를 모토로 했음을 전제한다.

김윤숙 작가는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육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 작품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인전을 계기로 차근차근 나만의 작품세계를 일구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와 LED 작품, 아크릴 회화 작품 등 다양한 회화세계를 아우른다.

'인생아리랑-아버지의 봄날'은 개인적 서사는 물



'인생의 여정-비로소 보이는 겨울풍경'

론 공동체 이야기가 담긴 작품이다. 장날 장구가락에 맞춰 울려 퍼지던 아리랑, 남녀노소가 어울리던 흥겨운 무대는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인생의 여정-비로소 보이는 겨울풍경'은 한겨울 도심 어귀의 풍경을 초점화했다. 털장갑, 털목도리를 착용하고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은 한낮 온도가 30도를 넘는 요즘 같은 날이면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 가운데 하나다.

김리천 평론가는 "작가는 자신과 가족, 이웃의 삶, 전통문화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서정적 또는 서사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